



탐방2/교육의 산실을 찾아서(1)

어려서부터 깨끗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 대구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 영 수

화장실 문화 개선의 사각지대로
알려졌던 교육현장에서
새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
대구시 교육청을 찾아
현장의 소리를 들어 본다.

화장실은 문화인의 척도

화장실은 인간생활의 절대적인 공간으로 문화인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고 아름답게 관리를 함으로 정서함향을 통해 인성교육에 기여하고자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학생회 주도의 자정운동 전개

가능하면 학생회가 주도하고 교육청 및 학교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액자에 학생들의 작품을 걸고 조화 및 생활등도 폐품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편안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작년 말까지 38개교가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청에서 화장실 입구에 휘장을 걸어주어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더욱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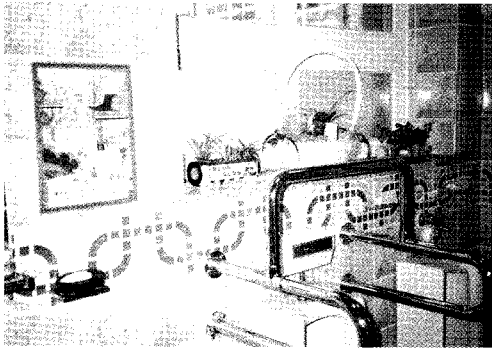


▲ 대구시 대구교육청은 학교 화장실에 학생들의 작품과 폐품들을 활용에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에 앞장서 이젠 화장실이 단순히 생리적 현상의 해결장소가 아닌 편안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
-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는 인제교육
-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사회 건설
- 학습복지가 실현되는 교육환경 조성

청결상태 크게 발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큰 성과입니다.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자제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입니다. 학교마다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표어나 학생들 작품을 게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방향제, 키재기, 체중계를 비치하는등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작품을 화장실에 비치하여 애교심과 친밀감을 더해주고 있는 초등학교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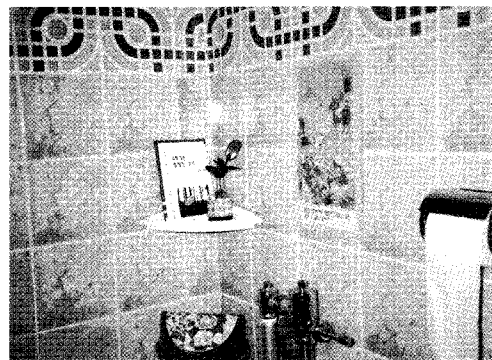
올해의 계획은?

앞으로 깨끗한 화장실만들기 운동을 「공공시설물 애용하기 운동」과 연계하여 공중화장실도 깨끗하게 사용하기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수학교에 선정되면 상장과 함께 학교별로 80만원씩 지원되던 상금도 올해부터는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80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면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
장산초교 김희철 교장은 어렸을 때부터 깨끗하게



사용하는 습관과 공공시설을 아껴쓰기 운동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고, 용전초교 박달원 교장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면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학교 화장실 문화의 정착방향을 대부분 학생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 조화보다는 생화 또는 자생식물을 직접 키우게 하고 지역의 관광지 또는 문화유적지 같은 사진을 비치하여 자연스럽게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바꿀 예정이다.



▲ 화장실에 책꽂이를 설치하여 독서의 공간으로 자리잡은 용전초등학교